

정상외교 경제 · 산업분야 성과 점검(Ⅳ) [국토 · 교통]

2021. 7. 5.

국 토 교 통 부

목 차

I. 개요	1
II. 주요 성과	2
III. 향후 계획	3

I. 개요

- (총괄) 총 69회 정상외교(순방 24, 방한 34, 화상 11)를 통해 발굴된 과제 896건 중 해외건설 수주, 항공·교통협력 등 47건 후속조치 추진
 - (유형별) ① 해외건설 수주 등 실질 성과 도출, ②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, ③ 정부간 인프라 협력 확대
 - (지역별) 신남방(24), 신북방(10), 중동·아프리카(3), 미주·유럽(5), 오세아니아(1), 다자협력(4)
- (현황) '21년 3월까지 과제 14건을 완료하고, 33건을 이행 중

<주요 완료 과제 내용>

- ① (해외수주 등) ▲인니 공공주택 건설 협력 MOA('17.11) · 설계착수('18.下), ▲뉴질랜드 키워빌드사업(10만호) 참여('19.8, 220억원) ▲몽골 복수항공사 취항 합의('19.1)
- ② (해외진출) ▲러시아 물류 통관절차 TSR 활성화 협의('19.9), ▲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ITS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('17.12)
- ③ (인프라협력) ▲싱가폴 스마트시티 협력 확대(전시회 참여, '18), ▲한-러 철도공사간 철도연결 공동연구('20.6), ▲아세안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상호 참여('18.11)

- '20년은 코로나-19에 따른 대면협의 애로에도 불구하고, 지속적인 화상 회의·협조서한 발송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

* GICC행사 온라인 개최(9개국 고위급 면담), 37개국 65개 발주처 向 협조서한 송부

- (평가) 고위급 면담·협의체(양·다자간), 개발협력·공동연구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토·교통분야 협력 및 해외 수주 기반 확대

-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고위급 협의채널 신설*,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인프라 수주 확대**, 해외진출 기반 강화 및 인프라 협력 제고 기여

*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·인프라 장관회의('18~), 한-말련 교통협력회의('20.12)

** (주요실적) 싱가포르 주룽MRT(5.4억불), 인도 뭄바이도로(3억불), 사우디 마르잔프로젝트(28억불)

- 신남방·북방 정책과 연계, 정상간 대형 인프라사업 참여협의를 통해 그간 중동 중심 해외건설 시장을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

* 수주 비중 : 중동 ('14)47.5% → ('20)37.9%, 아시아 ('14)24.1% → ('20)33%

II. 주요 성과

① 해외건설 수주 증대 등 실질 성과 도출

- (도시·산단) ▲ 말련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수립
▲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를 통한 ICT 솔루션 수출
- (철도·도로) ▲ 인니 자카르타경전철 PMC, ▲ 카타르 ITS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PM 분야 수주 증대 및 신기술 기반 수출 확대
- (항공·공항) ▲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전략적 자문사 선정,
▲ 한-몽골 복수노선 취항, ▲ 한-프랑스·중국 운수권 증대 성과

②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

- (고위급 대화) ▲ 한-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, ▲ 교통장관회의
▲ GICC 계기 양자면담(인니 등 63회)을 통해 수주기반 마련
- (협력 MOU 체결) ▲ 태국 도로교통MOC, ▲ 투르크멘 공간정보 MOU, ▲ 폴란드 공항MOU, ▲ 카타르 ITS MOU를 통한 진출 지원
- (협력거점 신설) ▲ 인프라 협력센터(3개소, KIND), ▲ 스마트시티 협력센터(4개소, KOTRA) 설치하여 사업 발굴, 정보 공유
- (홍보 지원) ▲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로드쇼, ▲ UAE·카타르 ITS 로드쇼, ▲ 카자흐 물류기업 상담회 등을 통한 사업 설명 지원

③ 개발협력·공동연구 등 통한 인프라 협력 강화

- (개발협력) ▲ 인니 ITS 기본설계, ▲ 우즈베크 건설제도 현대화,
▲ 공무원 초청연수 등 ODA 등을 통한 협력국 기술·교육지원
- (K-City Network)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계획수립·사업발굴 및 개발, 초청연수 등 패키지 지원('20.6~, 아세안 6개국)
- (정부간 협력) ▲ 인니 수도이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, 고위급 협의체 운영, ▲ 아세안 공사초청 간담회를 통한 협력사업 논의
- (공동연구·상호교류) ▲ 러시아 철도 상호운영성 공동연구(3건),
▲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국제행사 상호참여 등을 통한 교류 증진

Ⅲ. 향후 계획

◆ **대면+비대면 채널 병행**하여 건설기업 **해외진출** 지속 지원하고,
스마트시티·항공·교통 등 **분야별 협력** 확대

- (해외건설 수주지원) 민간·공기업 간담회(분기별)를 통해 주요 사업 진행상황을 밀착 **모니터링**하고 **가용가능한 정책수단**을 적극 지원
 -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방한초청 국제행사(GICC*) 개최 등 **대면** 방식과 고위급 화상면담 등 **비대면** 방식 병행, **G2G 협의**를 통한 수주지원
 - * 해외 주요발주처·고위급 정부인사 초청, 우리기업과 네트워크 지원 + 기업역량홍보
 -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(PIS) 펀드 1단계 조성 목표(1.5조원)를 신속히 달성하고 하반기 투자사업 집행 가속화로 진출여건 마련
 - 「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(가칭)」 구축(연내), 정보 통합관리·제공
- (기업애로 해소지원) 코로나19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인한 발주처 협의 등 애로해소 지원하고, 현지 의료여건 보완 지원
 - 해외건설 기업애로해소 TF(‘21.1분기~) 운영을 통해 심층 지원사항 발굴, 발주처 협의 지원을 위한 서한발송 및 법률컨설팅 등 지원
 - 「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」 개시에 따라, 우리 건설기업-국내 병원 간 비대면 진료서비스 매칭(‘20.9~, ’21.5월 기준 258명 지원 완료)
- (G2G 협력 지속) 고위급 회의·ODA 등을 통해 인프라 협력 지속
 -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해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·인프라 장관 회의 개최(‘21.下, 잠정) 및 ’21년 K-City 사업 지원(‘21.6, 4개국 선정)
 - 연내 제5차 한-아세안 항공회담, 제7차 한-러 교통위원회 개최 추진하여 항공·교통분야 협력체계 유지
 - 수원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**인프라분야 ODA**를 지속 확대하고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강화*하여 실질 사업수주로 이어지도록 도모
 - *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 타당성조사(ODA, KSP-EIPP 등) → 금융조달(EDCF)